2017년
청소년 인문학감상문쓰기 대회
수상 작품집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

목 차

중등부 심사평 _ 심사위원 홍희숙
고등부 심사평 _ 심사위원 안현경

중등부

대 상 수상작 성신여자중학교 임지영 – ‘거리 소년의 신발을 읽고’
최우수상 수상작 상주여자중학교 이해인 – 우리들은 보석 같은 존재
성신여자중학교 김소은 – 모두 깜언!
내서중학교 주희진 – 모두 깜언
상주여자중학교 곽연화 – 모두들 결핍은 가지고 있다
우 수 상 수상작 성신여자중학교 김남이 – 『불량 가족 레시피』를 읽고
성신여자중학교 신효림 – 물음표
모서중학교 김민석 – 오늘의 나는 그를 닮고 싶다
화령중학교 윤현정 – 생각, 나의 해답
상지여자중학교 김가인 – 모두 깜언
장 려 상 수상작 중모중학교 임정남 –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
남산중학교 신효섭 – 『모두 깜언』을 읽고
함창중학교 신진호 – 『거리 소년의 신발』을 읽고
낙운중학교 이채은 –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야
상주중학교 장호진 – 모두 깜언

고등부

대 상 수상작 우석여자고등학교 박영채 – 언덕을 오르는 데 필요한 것
최우수상 수상작 우석여자고등학교 윤주영 – 연을 쫓는 아이로 바라본 삶의 진리
상주여자고등학교 김나은 – 아름다움과 무서움 사이에서
상지여자고등학교 김윤경 – 연을 쫓는 아이를 읽고
함창고등학교 김기찬 – 기억과 감정의 관계
우 수 상 수상작 우석여자고등학교 김윤정 – 조르바의 도끼처럼
상주공업고등학교 엄종현 – 다른 길을 터준 그들에게
장 려 상 수상작 중모고등학교 차규현 – 쇠제비갈매기의 꿈
상주여자고등학교 강혜나 – 나무보다 풀이 낫다
상산전자고등학교 김광수 – 기억전달자

중등부 심사평

부담을 버린 읽기와 표현

심사위원 홍희숙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원, 작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느낌을 기록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기록으로 인하여 책 한 권이 나의 것이 된다는 점에서 독서감상문을 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상주도서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니 예전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버린 듯 보였으며 자유분방한 표현들이 좋았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게 된 <거리 소년의 신발>을 쓴 임지영 학생의 글은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힘든 환경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더 좋은 삶을 찾아서 탈출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과 비교하면서 선명하게 잘 드러냈습니다. 줄거리보다는 자기 생각이 많이 반영된 점, 문장이 매끄럽고 힘이 있어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를 읽고 쓴 이해인 학생의 작품입니다.

자신 정한 제목이 빠진 다른 작품과 달리 '우리들은 보석 같은 존재'라고 부제목을 달아서 좋았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다룬 도서를 선택하여 정독을 하였으며 독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이라는 해답을 찾은 점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 깜언> 을 읽고 쓴 김소은 학생의 글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자신의 환경과 입장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모든 사람에겐 결핍이 있다. 그것을 숨기지만 말고 드러내면서 치유해가자'라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독서로 인해 본인이 마음이 충분히 움직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각종 매체에 노출되어 화려한 삶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책을 읽고 공감하고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본 학생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 있는 문장과 진솔한 내용들이 심사를 하는 내내 감동이 왔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쓴다는 증거지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책 제목 외에 자신이 정한 부제목이 독서 감상문 쓰기 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작품들이 따로 제목을 붙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도처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지진도 여러 번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고지에 또박또박 써준 감상문은 오랜 시간 어딘가에 남아서 누군가에게 읽히고 공감하게 할 것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록하시길 바라면서 심사평을 마칩니다.

고등부 심사평

심사위원 안현경
대구 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바야흐로 인문학 열풍의 시대이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뜻밖의 곤란한 일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무엇이 인문학이고 무엇이 인문학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되풀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탐구에 중점을 두는 인문학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처럼 인문학의 정의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이번 공모전의 참가작들 또한 일반적인 북리뷰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마음으로 글을 살펴보게 되었다.

고등부 청소년들의 감상문들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주제라 함은 단연 자아성찰이었다. 문제의식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살피는 것이 곧 인문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을 책을 읽는 동안 자연스레 간파하게 된 것이었을까? 수상작들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드러낸다.

로이스 로리의 『기억전달자』를 읽고 쓴 <언덕을 오르는 데 필요한 것>은 “선택을 피하기보단 당당히 마주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를 읽고 쓴 <연을 쫓는 아이로 바라본 삶의 진리>는 “현대 사회에서 불공정한 상황에 맞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며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서술한다. 또 신동만의 『쇠제비갈매기의 꿈』을 읽고 쓴 <아름다움과 무서움 사이에서>는 “자연의 무서움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그 무서움보다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세 작품은 공교롭게도 모두 영상과 관련되어 있다. 『기억전달자』나 『연을 쫓는 아이』는 동명으로 영화화 되었고 『쇠제비갈매기의 꿈』은 자연다큐멘터리 영상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다. 어디까지가 인문학이냐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자에서 영상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적 가치관을 내포하지 않은 것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문학 강의를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이라면 ‘길 위의 인문학’이란 명칭을 종종 접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름 짓기의 내면에는 인문학이 ‘우리가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끌어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미래의 삶이 어떠한 형태를 지니든 간에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가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독서를 통한 글쓰기가 자아성찰의 계기가, 또 인문학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듯이, 앞으로도 인문학을 학문의 일종으로 단정 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의 가운데에 놓여진 동반자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7년 청소년 인문학 감상문 쓰기대회 수상 작품

중등부

대 상

『거리 소년의 신발』을 읽고

임지영
성신여자중학교 2학년

북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동시에 가장 먼 나라이다. 자동차로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몇 십 년 동안이나 발을 딛지 못했다.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간혹 북한의 모습을 보곤 한다.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와 함께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을 만큼 화려한 평양이 있는 반면, 모두가 가난에 시달리며 거리에는 온통 도둑질과 싸움만 남은 빈민가도 TV에 비추어진다. 북한에서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희생을 맹세한 사람만 고위 간부, 혹은 장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높은 관직을 얻은 사람은 평양에서 영원히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중, 평양에서 장교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성주는 남부럽지 않게 자라왔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중, 아버지의 한 실수로 정계에서 쫓겨나 함경북도의 경성으로 떠나게 된다. 성주네 가족이 도착한 경성은 평양에 살 때 자주 놀러갔던 놀이공원, 세련된 건물들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다. 경성의 학교에서는 온통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 뿐 이었고 그 중 몇 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라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내 또래,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아이들까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들판의 풀이나 쥐를 잡아먹는다는 말을 듣고 먹기 싫다는 이유로 음식을 자주 남기곤 했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점차 성주네 가족도 돈과 음식이 부족해지자 성주의 부모님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떠나고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결국 돌아오지 않으셨다. 성주는 거리에 나가 친구들과 소매치기, 구걸, 싸움, 성매매를 거들며 겨우 음식을 구해 다녔다. 한창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자랄 시기에 다수의 북한 아이들은 가난과 질병, 굶주림으로 가득 찬 세상에 내동댕이쳐졌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지도 못한 나이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둑질이든 싸움이든 무작정 해야 했다. 그렇게 성주는 살기 위해 북한의 '꽃제비'가 된 것이다. 성주가 꽃제비 생활을 4년간 계속 하던 어느 날, 기차역에서 백발의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은 바로 성주의 외할아버지였고, 외할아버지와 생활하던 도중 중국으로부터 한 편지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란다."

아버지는 편지와 함께 성주의 탈북을 도와줄 사람을 보냈고 성주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죄송함, 그리움의 눈물을 삼키며 그들이 남조선이라 부르는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었다.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쌀포대를 보고 '대한민국'이 쌀포대의 이름인 줄 알았다는 탈북자의 일화도 있었다. 그만큼 폐쇄되어 있는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남조선, 즉 대한민국은 얼마나 궁금하면서도 두려울까? 어떤 사람이 사는지, 무엇이 있는지 전혀 내다볼 수 없는 땅에 발을 내딛은 탈북자들의 용기가 대단하면서도 탈북이 최후의 선택이라는 게 안타깝게 느껴졌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 정착·이민을 온 탈북

자가 약 26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에서 굶어죽느니 차라리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 그리고 탈북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것이 북한에 있다는 생각들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 결과로써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탈북자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도전에 존경의 말을 전하고 싶다. 물론 이 글을 쓰신 이성주 작가님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이 책이 어머니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 책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비슷한 삶을 살아온 탈북자들에게 닿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최우수상

우리들은 보석 같은 존재

이해인
상주여자중학교 1학년

국어 선생님께서 이 대회의 선택도서목록을 보여주셨다. 그 목록에는 선택도서들의 제목이 적혀있었다.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이 책의 제목에, 너무나 힘이 되는 그 말에 내 마음은 끌렸다. 그때의 난 외모문제,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았기에 나를 위로해주는 이 책의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러고는 책의 종류가 무엇인지 보지도 않고 이 책을 택했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난 책을 잘 골랐다고 생각했다. 안 그래도 고민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고민을 주제로 한 에세이집이라니! 난 내 고민의 해결방법과 다른 청소년들의 고민들을 알아보기 위해 얼른 책장을 넘겼다.

이 책에서 고정욱 작가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외모, 진로, 우정, 사랑 등에 관한 10가지 고민과 그에 대한 생각을 써주셨다. 그 중에서 난 외모, 진로, 습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요즈음 나와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와 달리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어떤 친구는 쉬는 시간에 앞머리에 헤어롤을 말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난 뒤 진한 화장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몸무게를 줄이려고 급식을 먹지 않기도 한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우리들의 이런 행동이 당연하고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미의 기준은 정해져 있을까? 정해진 미의 기준을 달성해야만 아름다워질까?’ 이러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머릿속에 생겨났다. 먼저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연예인, SNS 스타들이 과연 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내 답은 ‘아니다’이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각자의 개성을 지니며 태어난다. 그 개성과 다름은 사람들 각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연예인, SNS 스타들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의 진짜 아름다움은 차츰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작가님은 청소년들이 지향하는 미의 기준은 기업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도 작가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왜 항상 광고 모델이나 드라마 주인공은 날씬하고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작아야 하는가? 통통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얼굴이 큰 사람도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외모나 몸매가 예뻐야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내 답은 ‘아니다’이다. 고운 말을 쓰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배려심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외적조건보다는 내적조건이 아름다워야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꿈은 기자이다. 나는 기자가 되어 사회의 큰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기자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되레 짜증을 냈다. 물론 나도 기자가 되려면 피땀 나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힘

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나 자신을 의심했다. 그러나 작가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부는 너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 혹은 훌륭하게 만들어줄 좋은 사다리야.' 라고 말이다. 작가님의 말씀이 맞다. 공부는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줄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피하기만 한다면 결코 나의 꿈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얼른 그 사실에 정면 돌파해 내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

나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것이다.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난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해야 할 일 외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작가님은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면 그 습관을 유발할 물건들을 멀리하고 그 습관을 없애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해야 할 일을 제때하고, 그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컴퓨터나 MP3를 멀리 해야겠다.

우리는 먼 훗날 사회를 이끌어 나갈 보석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실수를 하거나 고민이 있더라고 좌절하지 말고 기억하자.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최우수상

모두 깜언!

김소은
성신여자중학교 1학년

모두 깜언! ‘모두에게 고맙다’라는 의미이다. 안타깝지만 나는 모두에게는 아니고 이 책을 써 주신 김중미 작가님께 정말 감사하다. 10대들의 감성이나 생각,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랑 너무 같아서, 거의 뭐 내 일기장을 읽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인 마을 어른들 그리고 10대들 모두가 저마다의 특색이 통통 튀고 다양해서 책을 읽는 동안은 멍 때릴 틈 없이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은 다문화부터 10대들 그리고 농촌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에 관해 말해준다. 우선 다문화 가정에 대해 말하자면, 37살인 유정이의 작은 아빠는 20살인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여 용민, 용우, 유경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다. 이 가족 중 용민이는 엄마한테 불만이 많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고 울기까지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용민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반에도 다문화 가정 친구인 시진이가 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착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시진이는 놀림 받기는커녕 나보다 더 잘 노는 친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민이가 엄마를 부끄러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용민이 같은 다문화 가정을 부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문화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한다면 시진이 같은 밝은 아이도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는 6학년 때만 해도 ‘다문화는 불쌍해’라는 어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1이 되어서 시진이를 보고 또 이 책을 접하고 나의 그 편견은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유정이의 작은 엄마 그리고 내 친구 시진이 엄마는 둘 다 밝고 적극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엄마들의 적극적인 성격이 아이들을 밝게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두 번째는 유정, 광수, 지희, 우주 이 4명의 10대 스토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책의 10대들은 극도로 오글거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마음을 꽤 단단히 먹어야 한다. 나는 아마도 이렇게까지 오글거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 4명을 각각 소개하자면 유정이는 앞에서도 말했듯, 부모가 없다. 나는 솔직히 이혼 가정의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다. 한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유정이는 더더욱 불쌍했다. 하지만 그런 애들은 나보고 동정하지 말라고들 한다. 그럴 때 마다 나는 말문이 막힌다. 불쌍한 걸 어떡하라고... 그렇다. 우주는 목사님 아들이다. 여기 시골 아이들과는 다르게 말끔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외모도 괜찮은 엄친아 같은 친구이다. 여기서 잠깐! 유정이는 우주를 좋아한다. 우주도 유정이를 좋아한다. 비록 서로는 몰랐지만 나도 지금 짝사랑중이다. 나는 항상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짝사랑의 흔한 특징이다. 유정이와 우주는 그 생각이 현실일지 몰라도 난 아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는 하는데 부럽다. 그리고 살짝 짜증났다. 광수도 한 마디로 영락없는 ‘촌놈’이다. 농사도 잘하고 일도 잘

하지만, 공부는 더럽게 안한다. 그래도 중3 중간고사에서 정신을 차렸는지 평균을 15점이나 올렸다. 그리고 맨날 장난만 치던 광수가 고딩이 되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간지럽고 의아했다. 마지막으로 지희는 엄마 아빠의 불화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이다. 나도 지희 같은 경험이 있다. 3학년 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잠시 떨어져 살았던 기억이 있다. 어려서 기억이 정확히 나는 건 아니지만 속상했었던 것 같다. 그런 지희가 많이 공감된다. 나와 같은 10대라서 너무 많이 쓴 것 같기도 한데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작은 결핍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결핍들을 자꾸만 좁고 컴컴한 방에 숨기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방 안에 숨겼었던 결핍들을 후련하게 꺼내 놓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꼭 함께 수다를 떨며 공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에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해줘라. "모두, 깜언!"

최우수상

모두 깜언

주희진
내서중학교 3학년

<모두 깜언>이라는 책을 읽었다. 솔직히 말해서 선택도서 5권 중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은 따로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의 줄거리를 읽는 순간 “아, 이 책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이야기 같은,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책에 끌리게 된 것 같다. 나는 호그와트나 달이 아닌 경상북도 상주에 살고 헤르미온느나 히어로가 아닌 광수, 우주, 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판타지나 히어로물이 아닌 현실성 있고 다 읽고 나서 잔잔한 감동,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있는 글이 읽고 싶던 나에게 딱 맞는 책이었다. 이 책에서는 유정이라는 아이가 나온다. 언청이인데다 엄마는 집을 나가서 지금은 작은 아빠, 작은 엄마, 할머니, 사촌 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작은 아빠는 농사를 짓는 농부다. 작은 엄마는 베트남에서 와서 한국말이 서툴렀다. 이것만 보면 유정이는 자신이 속해있는 가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틀렸다. 적어도 책에서 본 유정이는 산골짜기에 살아도 산과 물을 보며 집 가는 길이 좋다고 말하고 사촌 동생 용민이와 용우를 당연하다는 듯 돌보며 어른스럽게 자신의 삶을 나름 꾸려나가는 16살 같다. 나는 이런 유정이를 보면서 본받아야 할게 많아 보였다. 늘 가족을 생각하고 자연을 사랑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품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유정이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게 보였고 할머니나 작은 아빠의 부탁도 궁시렁 거리지만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의젓하구나.” 싶었다. 하지만 유정이도 찾고 있었다. “나다움”을. 나다운 것이 뭔지 알기 위해 소리도 질러보고 울어도 본다. 가족들 눈치 보며 착하게 행동하는 게 나다운 행동이냐며 따진다. 나는 놀랐다. 저렇게 어른스럽던 유정이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유정이도 자신의 결핍이 서러웠을까.

유정이의 작은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다. 중매결혼. 뉴스에서 본 적 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여자들이 한국남자와 결혼하러 한국으로 와서 그 나라 남자들은 결혼하기 힘들다는 얘기나 결혼한 뒤 가족들과 잘 맞지 않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유정이네 가족은 딱히 그렇진 않았다. 작은 아빠는 작은 엄마를 사랑했고 할머니는 작은 엄마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유정이는 처음에 작은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작은 아빠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유정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엄마는 유정이의 엄마고 작은 아빠는 아빠라고 작은 엄마가 말해줬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꿍어, 꿍안, 꿍떰’이 중요하다고. ‘꿍어, 꿍안, 꿍떰’은 ‘함께 살고 , 함께 먹고, 함께 일한다.’라는 뜻을 가진 베트남 말이라고 한다. ‘꿍어, 꿍안, 꿍떰’. 나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핍을 거지고 산다. 기계가 아닌 이상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순 없다. 그 결핍들을 딛고 일어서려면 주위 사람들이 필요하다.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그 사람들과 서로서로 결핍을 채워주며 함께 일어서야

한다. ‘함께 간다’ 라는 걸 요즘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해낼 일을 전교생이 힘을 합쳐 서로가 만족스럽게 완성해내는 걸 경험해봤다. 그것은 생각보다 짜릿했다. 유정이는 같이 가야 행복하다는 걸 갑자기 인생에 나타난 작은 엄마에게 배웠다.

유정이는 늘 입 위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놀릴까봐, 부모님 없다고 놀릴까봐 늘 감추고 이 집에 자신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며 눈치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유정이에게 작은 아빠는 유정이 보고 내 딸이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하고 광수는 그런 유정이를 다 알고 이해해준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 유정이는 책의 초반의 모습과는 몰라보게 달라진다. 분명 자신을 인정하고 내보여 훨씬 더 안정되어 보이는 것이다. 이제 책 밖의 유정이는 행복할 것이다. 나를 이해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고 나를 인정하는 내가 있으니.

작가의 말 중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말이 있었다. ‘결핍은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매개가 되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게 작가가 독자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결국은 ‘꿍어, 꿍안, 꿍떰’ 이 개인이 혼자 살기도 바쁜 시대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게 ‘함께’ 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럿, 단체를 이길 수는 없다. 나는 그걸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결핍을 채워주는 모든 내 사람들에게, 모두 깜언!

최우수상

모두들 결핍은 가지고 있다

곽연화
상주여자중학교 3학년

나는 평소 사회나 역사, 과학을 주제로 만든 책들을 자주 읽는다. 「모두 깜언」이라는 책표지를 처음 봤을 때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책의 표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결말 까지도 깜언으로 시작해 깜언으로 끝난다. 깜언이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고마워’라는 말이다. 나는 이 책에서 ‘누구에게 고맙다고 하는 걸까’하고 궁금증이 생겼다.

책에서는 나와 같은 나이인 윤유정 이라는 소녀가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모든 사람들은 결핍을 가지고 있다. 유정이는 구순 구개열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수술과 치료를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흉터와 발음이 유정이를 가끔 아프게 했다. 유정이는 부모님과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작은 아빠, 작은 엄마와 같이 산다. 하지만 씩씩하게 잘 자랐지만, 책에서 중간 중간 상처 받아 멍든 마음이 드러난다. 난 유정이의 마음에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읽은 거 같다. 꼬맹이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할머니의 말에 나도 아픈 애니까 죽으라고 나뒀냐며 소리 칠 때는 내가 마음이 아파 울면서 읽었다. 나도 유정이처럼 얼굴에 흉터가 있다. 나는 이마에 큰 흉터가 있는데 어릴 적 교통사고로 난 흉터다. 난 가끔 내 얼굴에 흉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끔 처음 만나거나 새 학기가 되어 다른 선생님과 사람들과 만날 때면 매번 이마에 흉터에 대해 묻는다. 난 그 순간 ‘내가 흉터가 있었지’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왠지 나와 친구들이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 싫어진다. 나는 흉터가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없다는 생각에 어릴 때는 괜히 슬퍼지고 기억도 안 나는 어릴 적 교통사고의 기억이 불현 듯 꿈 속에서 상상되어 그 날은 잠을 자지 못한 날도 있었다. ‘유정이도 이런 기분일까’ 유정이한테 나와 비슷한 점을 찾으니 책 속 유정이는 내가 되어 책 읽기가 재미있었다.

어릴 적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심하게 엄마한테 집착했다. 밑에 동생들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 건지 유독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그런 나에게 엄마와 떨어져야 한다는 건 어린 나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그래서 나는 유치원생 시절의 기억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유치원 버스를 탈 때면 그것은 나와 선생님 사이의 전쟁이었고 매번 내가 졌다. 난 이렇게 한시라도 엄마와 떨어지면 눈물이 홍수처럼 터지는데 유정이는 엄마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그리울까? 유정이처럼 엄마 없이 자란 광수는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했다. 사실 우리 이모도 이혼을 한 상태인데 사촌 동생이 7살 때 이혼을 해서 최근에 이모가 사촌동생에게 보고 싶다고 전화를 했을 때 광수와는 달리 안보고 싶다고, 난 엄마가 7살 이후로 엄마라는 사람이 없다며 이모를 슬프게 했다. 난 사촌동생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몇 년 동안 마음에 상처가 깊게 파였을 텐데 이제는 엄마의 얼굴도 기억할지 못할지 나도 사촌동생을 5년 넘게 보지 못했다. 행여나 책 속에 광수처럼 보고 싶다고 해서 날 만나게 되면 날 기

억할지 궁금해졌다. 사촌동생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잘 챙겨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도 날 기억 할지 궁금했다. 광수가 엄마를 만나는 과정에서 나는 오랜 기억 속에 사촌동생을 떠올릴 수 있었다. 광수 아버지는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그러는지”라고 하면서도 중국동포인 광수 어머니가 아직도 고시원에서 살더라며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 사촌동생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광수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겠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광수는 순진한 성격에 할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기로 소문난 소년이다. 장난 좋아하고 겉으로는 매일 웃으며 축구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엄마가 그리운 아이였다.

유정이의 작은 엄마는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다. 뉴스에서나 대중매체 속에서 알려지는 사실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나온다. 조금 다를 뿐인데 놀리고 괴롭힌다. 작은 엄마의 첫째 아들 용민이 또한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작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용민이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베트남어는 이상하다고 말하고는 영어는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베트남은 못사는 나라라서 싫고 영어는 미국 거라서 괜찮다고 말한다. 용민이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못된 편견을 대신 말하는 것 같다. 베트남 보다 우리나라가 우월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대문에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나 외국인 친구들이 상처를 받는다. 베트남 뿐 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멋지다. 못된 편견 속에서도 멋지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 있다. 자신의 개성 있는 외모와 큰 키로 모델 활동을 하는 다문화 가정 친구도 있고 한국을 사랑해서 국어를 연구하는 다문화 가정 친구,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도 외국인 분이 있으신 만큼 편견과 차별에 소심해지고 주눅 들고 슬퍼하는 대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서로 평등하다는 걸 깨달은 이러한 다문화 친구들이 많다. 만약 내가 베트남에서 살게 되면 나도 외국인이 되는 건데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놀리고 외국인이라고 놀리는 건 정말 못된 행동이다. 유정이도 놀림 받은 용민이에게 나처럼 말해줬었다. 용민이가 자신이 남들과 다름없이 평등하고 멋진 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유정이가 멋졌다.

책에서는 유정이, 광수, 용민이, 작은 엄마처럼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작가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결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그 현실을 얘기한다.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 유정이의 성장과정을 보면서 즐겁게 읽은 책이다. 주인공 유정이에게 공감하고 또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다문화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된 기회였다. 나의 결핍도 친구의 결핍도 결코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결핍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보듬어 줄 수는 있기에 나는 누군가의 결핍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수상

『불량가족 레시피』를 읽고

김남이
성신여자중학교 1학년

불량해도 이렇게 불량한 가족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여울이네 가족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울이는 고1, 이 아이는 코스튬플레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지만 코스튬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아빠가 알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 몰래 하는 아이이다. 여울이에게는 앞에서 말했듯이 불량한 가족들이 있다. 잠시 소개를 하자면 손녀에게 버럭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할머니, 모든 여자가 로망인 듯한 불곰아빠, 뇌경색인 삼촌, 고질병에 걸린 오빠 그리고 욕을 자주하는 언니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되어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빠와 언니 그리고 여울이는 배다른 형제라는 사실이다. 아빠는 하도 여자를 좋아해서 3명의 여자를 만났고 3명의 아들과 딸이 생겨난 것이다. 아빠가 만난 세 명의 여자 중 여울이의 엄마는 나이트클럽의 댄서인데 아마 아빠가 나이트클럽 갔을 때 여울이의 엄마보고 반하지 않았을까? 싶다. 여울이는 불량한 가족 집에서 출가를 하고 싶어한다. (여울이가 왜 굳이 가출이 아닌 출가를 쓰냐면 출가라는 단어가 가출이라는 단어보다 고급지도 불량스럽게 안보여서 쓴다.) 여울이가 출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점점 가족들은 한명씩 나가게 되었고 할머니도 자신이 가고 싶었던 요양원에 가게 되었다. 불량가족 레시피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나는 보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 것 같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여울이네 가족이 겉으로는 정말 불량스러워 보이지만 속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뜻한 면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겉이 아닌 속을 봐야 된다' 라는 말처럼 말이다. 우리 가족도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기도 했다. 우리 아빠는 잔소리가 엄마보다 더욱 길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니와 나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얘기했을 것이다. 엄마는 매일 폰을 만지고 있는 내게 공부를 하라고 날 혼낸다. 하지만 엄마는 날 잘 키우시기 위해 그리고 날 위해서 매일 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니는 매일 나한테 시비 걸고 날 짜증나게 만든다. 하지만 나한테 잘해줄 때도 많다. 그럴 때면 난 느낀다. 언니가 날 생각해주고 있구나...라고 말이다. 이렇게 우리 가족도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다.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 나는 불량가족 레시피에 나온 여울이네 가족도 겉으로는 정말 불량스럽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진심을 다해 서로를 챙기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이들이 점점 한 명씩 집에서 출가를 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는 불량가족이 아닌 정말 훌륭한 가족이 되었을 것이라고 희망을 하면서 상상을 해보게 되었다. 이들이 다시 한 집으로 모이게 되었고 할머니는 욕을 고치게 되었고 아빠는 이제 여자를 안 만나려고 노력하고 혼자 힘으로 일을 열심히 하여 평범한 집 안의 아빠처럼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오빠와 삼촌은 병을 결국에는 고치게 되어서 평범한 일자리를 찾았고 언니와 여울이는 그 누구보다 서

로를 아끼는 자매가 되어서 이 가족들은 불량한 가족이 아닌, 정말 훌륭한 가족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았다. 이렇게 불량한 가족 레시피가 훌륭한 가족 레시피가 되었음 하고 이 책의 마지막장을 넘겼다.

우수상

물음표

신효림
성신여자중학교 3학년

“너는 천국과 지옥을 둘 다 밟아보았어. 그러니까 더 유리한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말이야.”

십대에 적응하지 못한 어설프기만 했던 내 나이 열 살이었다. 그때의 담임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 내 고사리 손을 잡고 말해 주셨다. 그때의 증상을 의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우울증’이란다. 나이가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인 나는 매일 죽음을 동경하였으며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물음표가 어린 밤들을 괴롭혔다. 이러한 근원은 이상적인 것들을 애도하기 때문이었다. 이솝 동화에 흠뻑 젖어있던 소녀의 세계관에 사회 뉴스를 매일 보게 된다면 묶였던 생각이 체하게 된다. 또, 마냥 인간관계는 가만히 있다고 고여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밀린다는 것을 수긍하였다. 설익은 나이에 어린 심보는 세상에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랬던 나를 소설에 등장인물로 재해석한다면 아마, 여울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여울이와 나 모두 누군가에 의해져서 태어난 것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으며 리셋이 불가능하다. 아프고 비행위적인 것들에 반감이 일어나며, 평상시 느끼는 감정이 기쁨, 행복, 즐거움에 치우치길 바라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감정의 조건은 대다수가 동일하지만 ‘여건’은 하늘부터 밑바닥까지 난무하다. 그녀는 왜 불완전한 구성원 사이에서 정착해야 할까.

“가난은 다른 사람이 놓치지 않는 것들을 놓치게 한다.”

나는 가난과 동떨어진 사람이지만 여울이에게는 삶의 가치에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주체가 무엇이든 사람에게 세상을 정의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나의 열 살은 그 수도 없는 질문들을 나열하게 만들게 했고 그 뒷이야기는 열여섯의 내가 아직까지도 써내려가는 중이다. 온점을 찍을 수 없다. 끊임없는 쉼표만을 무수히 올리고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 맞는 모양으로 빚어져야 한다.

“어른이 되면 얼마나 말이 늘어지는지 아니? 말이 잔뜩 늘어나서 자기가 내뱉는 말들이 발목을 잡혀 얽매이게 돼. 말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그러다보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랑이 숨어져 있어.”

본문에서 아줌마가 여울이에게 했던 말이다. 아니, 이것은 말이 아니라 그녀의 자아를 안아 주며 정리되지 않은 부스스한 머리를 빗겨 주는 것일 지도 모른다. 지난 나에게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처럼 여울이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사람은 사람에 의해 다듬어진다.

자연재해는 불가피하다. 사람도 그렇다. 내 앞에 지나가는 이들은 그들만의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내가 서있는 다고 목적지가 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배웠던 것이 기억난다. 혼자 살 수 없는 조건에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잠재력이 한없이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차츰 원고지를 메우기 시작한다. 무궁무진해서 내 유년기가 안개가 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이 필요했다. 수동적인 것들이 나를 이루게 하였으니 나에게는 능동적인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이념이 필요했다. 여울이에게 아줌마와 친구들, 불량한 가족들, 도덕 선생님 모두가 밑거름이 아닐까. 여울이가 코스튬에 맨 얼굴이 가려졌을 때 자신을 찾는 중이 아니었을까? 교감을 통해서 ‘이게 제 모습일까요?’, ‘이건 어때요?’ 되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비로소 코스튬을 더 이상 꺼내지 않으리 마무리 하였을 때 구도가 잡혔을 것이다. 어떤 재료로 나를 이루어야 온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버려진 코스튬이 답해 준다. 자신만의 자아는 없다. 온전한 자아는 없다. 독창적인 창작물은 없다. ‘영감’으로 매듭지어지고 숨을 쉰다. 낙관적이지 않아도 돼. 나를 사랑하자. 이게 나의 모든 답이다. 그 근거들을 오늘도 사색한다. 물음표는 느낌표의 진화 전 단계이니.

우수상

오늘의 나는 그를 닮고 싶다

김민석
모서중학교 3학년

하루는 배가 고프고, 다른 하루는 몹시 추우며, 또 다른 하루는 끔찍한 고통이 반복되던 날,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순간이 다가왔다. 모든 희망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주인공 성주의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탈북 이야기. 나는 그의 이야기에 이 책을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이 책은 평양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던 성주와 그의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평양에서 추방당함과 함께 시작된다. 성주네 가족은 열악한 환경의 경성으로 가게 되고 경성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듯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주의 부모님은 경성을 떠나게 된다. 혼자 남은 성주는 흔히 꽃비라고 부르는 부모 없는 떠돌이 도둑 신세가 된다. 그러다 성주는 같은 꽃제비 신세의 친구 6명을 만나 함께 다니며 의리를 약속하고 항상 같이 다니며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한다. 그러던 중 다른 꽃제비들과 싸우거나, 안전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성주는 친구 2명을 잃게 된 후 더욱 강해지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다시 마을을 떠돌다가 성주는 할아버지를 만나 잠시 편안하게 살게 되고, 떠났던 아버지를 찾아 한국으로 오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나는 이 책에서 주인공 성주를 닮고 싶었다. 아니, 되고 싶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성주의 모든 행동을 나와 연관 지어 같이 생각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면, 성주는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다. 나였으면 포기했을 일들, 나였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일들, 나였으면 도전할 생각도 못했을 일들을 성주는 모두 해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그러다 보니 어느 샌가 나도 모르게 성주를 응원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나는 그를 존경하고 있나보다.

언젠가 한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성공하기에 필요한 것은 99%의 노력과 1%의 재능이라고. 그러니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 나는 이 말이 어쩌면 성주를 위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희망의 뿌리조차 뽑혀버린 성주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결과로 한국에 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성주를 위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살기 위해 이만큼이나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존재하는지가 궁금할 지경이다. 성주, 그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참 보잘 것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밥도 하루세끼 다 먹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교육도 제대로 받으면서 노력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 한심한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종일 놀기만 하고, 내 인생의 발전이 없으니까 말이다. 아마 그래서 이 책이 더 흥미롭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다. 나와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니 어쩌면 흥미롭지 않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

겠다. 그 덕분에 성주의 인생을 더욱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나와는 반대의 삶의 그를 이해하려면 내가 직접 책 속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다. 아마 책 속으로 들어가면서까지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멍청이는 나 밖에 없을 것이다. 뭐, 멍청이라도 나는 좋다. 그를 이해함으로써 내 인생도 바뀔 수만 있다면 멍청이라도 좋다. 나는 그저 시간이라는 수강료를 내고 인생을 배웠을 뿐이다.

뭐가되든 결론은 단 하나다. 나는 이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처음엔 그저 탈북자의 스토리뿐이었던 이 책은 어느 새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겐 진심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변할 것이고,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이 책처럼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는 책을 만들 것이다. 그 책으로 인해 변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때부터 난 성공한 인생이니까.

나는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횃불을 피워줄 수 있는 이 책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책, 나는 그 책의 이성주를 닮고 싶을 뿐이다. 나의 인생은 그저 하찮은 인생일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성주가 존경스러우니까. 내 인생에도 꽃이 피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삶의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오늘도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를 닮고 싶다.

우수상

생각, 나의 해답

윤현정
화령중학교 3학년

이 책을 봤던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솔직히 책이랑 안 친하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다. 이 책은 가벼웠고 술술 읽어나갔다. 계속 읽을수록 생각을 하게 책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여울이가 가출 같은 출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꼈다. 나는 뉴스를 싫어한다. 왜? 그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날까봐 못 본다. 그래서 여울이가 용감하고 멋있어 보였다. 책 맨 처음 여울이는 나의 심장을 사로 잡아버렸다. 가족들을 보면 흔히 보는 소설이나 드라마의 구성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가정 폭력을 하는 아빠, 잔소리에 성깔 있는 할머니, 귀저기를 입는 오빠, 뇌가 아픈 삼촌, 불만과 뚱뚱함을 갖춘 언니, 가출이 아닌 출가를 꿈꾸는 여울이 까지 불량가족 구성원이다. 나는 인생을 너무 좋아해서 인생에 대한 책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에 격하게 침투해 버렸다. 그 질문은 여울이가 코스튬을 하다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미하일 아주머니가 주셨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사는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가 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 씩은 이 질문에 머물러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방면으로 퍼져있었다. 그 중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해답이 비슷한 것을 말해보자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며,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은 모든 이유들로 살아간다. 내가 지금 딱! 이렇게 산다. 요즘 들어 모든 것을 표출하고 받아들이며 그것들 덕분에 내가 잘 살아간다. 1초 뒤, 1시간 취, 9년 뒤 언제 내 해답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내 해답은 온전한 내꺼 라고 느껴졌다. 나는 시선이 닿는 구절이 있었다. 그 말은 여울이가 했다. 여울이는 피오나 공주가 마법에서 풀리고 피오나 공주는 힘들고 고단했다고 말했다. 나는 다른 생각을 했다. 피오나 공주는 마법이 풀리고 더 행복했을 거라고 말이다. 난 생각을 하면서 나에 대한 일이 떠올랐다. 상황이 비슷한 건 아니지만 내가 시골로 내려왔을 때가 생각난다.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살았다. 엄마와 아빠는 맞벌이를 하셔서 나와 동생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다. 나는 그때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행복했고,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많은 이유들로 우리 가족이 시골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나는 탐탁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다. 나는 마치 여울이가 생각하는 마법에 풀려버린 피오나 공주처럼 시골에 내려왔다. 하지만 내려오고부터 지금까지 나는 행복했던 서울 생활을 기억 저편에 고이 놓고 완전히 다른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16년을 살아가면서 바뀐 것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나는 바뀌는 전과 후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피오나 공주도 그럴 것 같다. 여울이와 나의 공통점은 짝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난 짝사랑은 두 번 했는데 두 번째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했다가 차였다. 제일 공감이 가면서도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세바스찬이 분장하고 올라와서 여울이에게 고무입술로 뽀뽀한 장면이다. 짜증이 나면서도 힘들다. 내

가 좋아하는 아이도 그렇다. 찼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지 꼭! 괜한 짓을 해서 사람 혼란스럽게 하는데 뭐 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류은이를 좋아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올라가서 뽀뽀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여울이가 사고를 쳐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요즘 모든 일을 내가 혼자서 해결하고 싶다. 내가 생각했을 때 여울이는 집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인데 나는 집에 알리고 해결한다. 그런 점에서는 달랐지만 우리는 혼자서 해결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약간의 사춘기 소녀의 심정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을 때 공감되는 마음과 공감이 안 되는 마음으로 나뉘어 졌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고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공감하면서 책의 등장인물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생각이 풍요로워진 것과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을 등장인물들 입장에서 생각도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토론을 해본 것이다.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다. 나는 『불량가족 레시피』라는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고 싶다. “공감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쉽게 공감이 되는 책이다.” 라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 60억 인구가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끝으로 같은 짝사랑 진행형인 여울이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사람 마음이란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너는 세바스찬을 향한 너의 마음을 끝까지 다 쓰고 더 좋은 남자를 찾으라고 말이다. 이 시대의 책을 싫어하며, 짝사랑 진행형인 여울이들을 응원하며...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수상

모두 깜언

김가인
상지여자중학교 2학년

인문학 공지가 뜨고 책 목록을 보는데 『모두 깜언』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마치 한편의 시가 웅장하게 실려 있거나 무언가 큰 교훈을 주는 책일 것 같아 선택하였다.

이 책은 시골소녀 유정이라는 여주인공의 모습과 생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유정이의 모습을 써 낸 책이다. 유정이는 엄마, 아빠가 일찍 헤어지셔서 할머니와 작은 아빠의 손에 크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유정이는 반에서 말이 조금 어눌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다. 하지만 그런 유정이에게도 단짝 친구가 한 명 있다. 이로써 여주인공 유정이의 소개가 끝이 났다. 이제부터는 이 책을 읽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 단지 시골 소녀 유정이 라는 말에 무엇인가 당차고 힘찬 스토리가 예상 되었다. 하지만 점점 뒤로 가면서 유정이의 가정사와 학교생활을 보며 불쌍하고 애처로웠다. 작은 아빠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스토리가 초반 즈음에 나온다, 거기서 유정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유정이 곁에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안 그랬으면 유정이는 학교생활 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항상 그 친구와 밥 먹고 쉬는 시간에 놀고 험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유정이의 가족사와 학교생활 등을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다. 물론 유정이는 책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래도 유정이가 실존인물이라면 말이다. 왜냐하면 유정이는 엄마 아빠가 헤어져 할머니와 작은 아빠의 손에 크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정이는 학교에서 말이 어눌하다고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지만 나는 말이 어눌하지도 않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도 않는다. 여러 면에서 나는 행복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유정이를 현실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곧 고등학생인데, 고입 준비해야 하는데, 컨디션 조절 잘 해야 할 텐데, 여러 가지로 만족해야 기분이 좋을 텐데, 가 생각난다. 하지만 유정이가 현실에 있었으면 고입 스트레스와 엄마 아빠가 없어서 느껴지는 마음의 공허함, 심지어 옆에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데 그걸로 유축 될 듯 한 유정이의 자존감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더욱 힘들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유정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기죽지 말고 항상 곁에 하나뿐인 친구가 있다는 것과 집에 가면 반겨주실 할머니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전하고 싶다.

장려상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

임정남
중모중학교 2학년

나는 오늘 열리는 청소년 인문학 감상문 쓰기 대회를 위해서 선생님에게 책 다섯 권을 받았다. 다섯 권이라는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어떤 책을 독후감으로 쓸지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책 표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였다. 물론 다른 책들도 재미있어 보였지만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책을 보았을 때는 더욱 더 관심이 가고 읽고 싶어졌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 때는 누구나 이성문제, 친구·가족 관계 등으로 여러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소재를 다룬 책이 바로 이 책이고 나 또한 다른 청소년들처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기에 내 고민에 대한 해결방법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먼저 질문 중에서 한 남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인문계보다 특성화고 즉, 실업계로 가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나는 이 부분을 읽고 진짜 너무 짜증이 나고 불쾌했다. 왜냐하면 나의 장래희망도 특성화고 쪽인데 이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해야 한다. 작가님의 답변처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부는 필수이다. 또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끝없는 공부가 필요하다. 세상 모든 학생들이 특성화고는 공부 못해도 되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도 인문계 아이들과 똑같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님은 원래 이과에 진학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문과에 진학을 해야 했다. 나는 작가님이 안타까웠다. 물론 장애인들이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장애인들이 의사 선생님이 된다면 의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것만으로 직업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원해서 장애를 갖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면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회에서의 차별과 제한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이 작가 선생님처럼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더라도 잘 이겨내서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나는 책을 읽다가 작가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신다. 그래야만 상대방이'아, 나에게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꼭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어야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 것이다. 그런데 약점을 보여주면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한다. 그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대인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친구와 친해졌으면 하는 나의 생각이고 바람 같

은 것이다. 모든 친구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작가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다. 친구는 '많으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서 작가님은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많은 것은 좋지만 진정한 친구 몇 명 있는 것이 더 좋다." 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된다. 진짜 친구가 많고 그 만큼 인기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 있을까?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작가님처럼 진정한 친구 한 두 명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라는 부분에서 작가님은 김유신 장군님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김유신 장군님은 기생과 술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더 이상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말 위에서 잠들어 버렸을 때 말이 늘 가던 기생집에 갔던 것이다. 깨어난 김유신 장군은 그 상태 바로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 나는 이 부분을 읽고 다시 한번 화가 났다. 자신이 매일 같이 기생집으로 가니까 동물은 당연히 오늘도 기생집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인데 자신이 앞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말이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은 동물 학대이다. 이런 행동을 하신 김유신 장군님께 많이 실망하였다.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생각은 일단 원래 이런 형식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책들은 답변들이 항상 반박할 수도 없고 맞는 말만 조목조목 말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할 수도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는 질문들이 전부 내가 작가님에게 하고 싶은 말 같아서 작가님의 답변에도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책에 나오는 말들이 힘이 되고 격려해 주는 느낌이어서 책을 읽는 순간마다 마음이 미여진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아무튼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던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도 작가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다 내가 만약 작가님이었더라면 결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해쳐나가지 못하고 나를 원망하고 자책만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부모님에게도 증오와 원망이 생기고 세상 모든 것이 밉고 나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 자신의 불편한 몸을 인정하고 항상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작가님의 이런 마음가짐은 본받아야겠다. 나도 작가님처럼 언제나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작가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서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 받고 싶기 때문이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책에 있는 선생님의 이메일도 고민이 있을 때 한번 매일을 보내봐야겠다. 그리고 고민이 많은 아이들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해주고 싶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고민들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자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장려상

『모두 깜언』을 읽고

신효섭
남산중학교 1학년

내가 이 대회를 하는 것,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인문학 관련 감상문을 쓰는 것은 꽤나 큰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 독서는 많이 하지만 주로 과학이나 철학책을 보고, 최근에는 인문학 책을 보기도 하지만 고전문학 위주로 읽기 때문에 이 대회의 책 종류는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점이 나에게 호기심과 신선함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여러 책 중 왜 이 책을 선택하였는지는 뒤에서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것이 '공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한 부분이 아닌 여러 부분에서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의 나이 대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하겠다. 이 책의 주인공은 중학생이다. 그러다보니 때론 친구와 다투기도 하지만 다시 화해하며 어울리고 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것 외에도 학업과 진로에 관한 부분에서도 공감하였다. 처음에 읽을 때는 못 느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 내가 다니는 학교도 결국 주인공들이 다니는 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상위층만이 성적 관리를 하며 열심히 공부하지, 그 밑으론 다 게임하며 놀 생각밖에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진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별 생각 없이 그저 현재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책에서는 주인공들이 서서히 생각을 늘려가며 꿈을 찾아가지만 그것도 주인공들 몇 명 밖에 되지 않는 학교 전체에서 아주 적은 일부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의 공간적인 배경은 농촌이다. 상주가 도시라고는 하지만 아직 농촌의 모습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의 주변만 둘러보아도 금세 이 책 속의 농촌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는 주인공 유정이나 광수가 부모님을 도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큰 공감을 할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었다. 또한 내가 힘들었던 것이나 창피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광수의 모습에 대해 감탄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의 공감을 끌어냈던 것은 다름 아닌 다문화에 관한 것이었다. 별로 밝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실 나의 어머니 또한 필리핀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고른 결정적인 이유이다. 사실 이 책에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나는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았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은 베트남 사람인 작은 엄마의 아들 용민이가 자신이 다문화라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엄마를 미워하는 것이었다. 그 부분에서 나는 화가 났다. 사실 나 자신도 그런 것을 창피해하고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위에서 내가 다문화라는 사실을 밝힌 것도 나 자신에게 화가 날 것 같아서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이 책을 선

택하기 잘한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그런 생각은 유정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유정이는 태어날 때부터 입천장이 갈라져서 많은 이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다. 다만 유정이는 다를 뿐이다. 나 또한 그런 존재하고 생각한다.

이 책은 나에게 도전이었으며 새로운 모험이었다. 그러나 그런 모험은 내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고 내 마음 속에 있던 문제를 찾아내고 해답까지 제시해주었다. 이 책은 나를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장려상

『거리 소년의 신발』을 읽고

신진호
함창중학교 3학년

희망이 없는 현재를 살아본 적이 있는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대학 입시에서 떨어질까 걱정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고, 또 항상 식빵이 잼을 바른 쪽으로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한번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민족 동포인 북한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가난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며 세뇌 당한 채 내일을 위한 삶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책의 주인공, 이성주는 북한 평양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삶은 아버지가 경성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끝이 난다. 그의 가족도 이제,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아니 희망을 꿈꾸는 것이 사치인 삶을 살아야 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과도 떨어져 지내게 된 성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성주는 굶어 죽기 직전에 친구 용범이에 의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도둑질을 배운다. 성주 또한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성주는 친구들과 함께 파를 만든다. 아직 그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역할을 나눴고,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곧 용범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경성을 떠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무작정 다른 곳으로 떠난다. 그들이 경성 바닥을 떠나 간 곳은 어느 북쪽의 지역. 성주는 그곳 패거리의 두목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그들을 피해있었다. 그때, 어떤 작은 꽃제비가 성주의 신발을 훔쳤다. 성주는 이제 자신의 신발 하나도 마음대로 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성주는 자신의 친구들과 다시 이동한다. 그곳에서 성주는 그곳 패거리들과 싸워 이겼지만 소중한 친구, 명철이를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고, 더 이동하여 20대 형들에게 젓가락을 던져 맞추는 기술도 배우고, 체력도 단련하여 그쪽 지역에 ‘창파’라는 이름을 알린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배를 훔치다 걸려 구호소에 잡혀가게 된다. 이쯤 되면 정말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다시 한번 구호소에서 도망쳐 나온다. 그들의 불행이 여기서 끝이 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후에도 용범이와 슬픈 이별을 하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간다. 경성에서는 용범이 마저 떠나보낸 슬픔 때문인지, 성주는 점점 타락해가기 시작한다. 시장 상인들에게 어디가면 마약인 ‘얼음’을 살 수 있는지를 묻고, 밤꽃과 성관계를 할 남자들을 찾아주고 죄책감 없이 돈을 받으며, 한번은 친구들에 의해 잠시 파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쫓겨나고서야 정신을 차린 성주는 곧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할아버지는 성주를 4년 간 찾아 다녔었고, 드디어 성주를 찾은 것이었다. 그렇게 다시 행복한 삶을 사는 듯싶던 그때, 성주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친한 친구, 즉 ‘딱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찾아

왔다. 성주는 고민 끝에 그 남자를 따라 아빠를 보고 다시 오려 했다. 그렇게 성주는 대한민국에 도착했다. 그렇게 성주는 친구들과 이별했고, 엄마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는 앞에서 나왔듯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다. 도둑질을 하고 학교에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고 친구들이 죽고...하지만 성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하긴 했어도, 희망 따위는 접어준 지 오래긴 했어도 결코 절망은 하지 않았다. 부모님과 어릴 적에 헤어졌지만 다시 아버지를 만났고 굶어 죽을 뻔 했지만 용범이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또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남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나도 이런 포기하지 않으며 희망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 해야겠다. 또한,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이런 참혹한 일들이 없어졌으면 한다.

장려상

너희는 보석같은 존재야

이채은
낙운중학교 1학년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제목을 들었을 때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 보여 한 동안 피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덕에 읽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고민을 담아놓은 책이었다. 중1을 살고 있는 나로서는 많은 것이 공감될 것 같아 부푼 마음으로 표지를 넘겼다.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Q&A 형식의 책이라 읽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수월했던 것 같다. 청소년들의 고민 '뭐 별거 있겠나' 싶은 마음으로 목차를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들의 고민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같은 고민거리로 밤을 세우고 마음 상하고... 이런 같은 고민들이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이란 말은 아니다. 쉽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결되고 흘러갈 일들이 대부분이라 솔직히 말하여 안타깝고 또 그런 고민들을 쉽게 넘기지 못하는 마음도 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은 집어 치우고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냥 고민을 말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너무나 뻔하고 흔하디흔한 "넌 할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이러한 말들을 전달하는 책이다. 이러한 책은 너무나 많이 접해본 나인데 이번 책은 무언가 달랐다. 내가 질문을 하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와서 조용히 나의 얘기를 들어주며 '오늘도 수고 했어요'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나의 고민을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아도 귀찮음 하나 없이 들어주고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책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외모, 성적, 학업 문제, 왕따, 가족 문제, 이성 친구, 약물중독 등 끊임없이 방황하고 넘어지는 청소년들이 한번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을 만한 고민들을 모두 적어놓았다.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약물중독, 폭력 부분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며 술술 넘겼는데 학업, 진로, 꿈 이러한 고민들이 나오니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고 천천히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읽게 되었다. 솔직하게 아직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 이런 나에게 책에서 주는 말들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와 닿지는 않았다. 아니, 누구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내가 조금 더 커서는 아주 완벽하고 정석 그 자체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지금의 나로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게 다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에 나오는 멘트들을 보면 내가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말들과 똑같은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잘못하여 잔소리를 들을 때도 예외는 아니다. 매일 듣고 항상 듣는 말들이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되새기고 다짐하는 말들이었는데 글로 정리된 책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 같으면서 다른 느낌을 받은 것 같았다. 귀로 들으면 한순간에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눈에 쏙쏙 박히는 글을 읽으니 아직도 그 멘트가 똑같이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야' 보석이라.. 보석은 항상 빛을 띠고 있다. 그 빛을 발견하느냐 계속 모르고 사느냐에 갈리는 것 같다. 그리고 모두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예쁜 보석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룬다. 나는 우리들이 보석 같다는 표현에 너무 공감이 된다. 우리는 모두 반짝이는 빛이 있고 꿈이 있다.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또 우리 모두는 조심스러운 존재이다. 특히 청소년, 흔히 말하는 사춘기 때에는 더욱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리들은 보석들이다.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을 다 읽고 또 한번 깨달았다. 이렇게 책만 읽었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들의 고민상담도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 한권으로 크고 대단한 무언가가 생긴 건 아니지만 작고 아름다운 힘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하다. 앞으로 자주 찾을 책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이 책을 봐서라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됐다. 고마운 것 같다. 이 책에게.

장려상

모두 깜언

장호진
상주중학교 3학년

난 이 책을 읽기 전에 깜언이 무슨 뜻인지 매우 궁금하였다. 깜언이란 까맣다는 뜻인가? 아니 무슨 우리 모두만의 암호인가? 이 책을 읽은 후면 알 수 있다. 깜언은 베트남어로 고맙다는 뜻이다.

모두 깜언은 강화도의 열여섯 살 소녀 유정이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 소설이다. 유정이는 일찍부터 부모님이 집을 떠나 작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컸다. 그 덕분인지 유정이는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없이 어느 날 꽁꽁 얼어붙은 작은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 줄 작은어머니가 먼 나라 베트남에서 왔다. 그 뒤로부터 유정이는 작은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고 작은어머니를 싫어하게 된다. 그 밖의 등장인물들은 사촌동생 용민, 용우, 유정이의 친구 지희, 광수와 엄친아 우주가 있다. 만약 사람들이 위 등장인물 중 누가 가장 마음에 드냐고 물으면 난 당연히 작은어머니를 고를 것이다. 평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바꿔 주었기 때문이다. 먼 나라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아주 좋은 경험이 있다.

이 책의 갈래가 성장소설인 만큼 유정이가 한 단계씩 알아가고 성장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나도 성장하는 것 같다. 특히 제8장 ‘넌 꿈이 뭐야?’에서는 미래에 대해 정확한 생각이 없는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진짜 꿈이 뭔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번은 유정이가 언청이라고 놀림 받는 장면이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대꾸도 못하는 유정이가 씩씩하게 극복하는 모습 또한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유정이가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작은어머니 덕분이다. 작은 어머니를 싫어하는 유정이가 뻔히 보이는데도 유정이가 힘들 때마다 진심으로 다가와 주고 아픔을 나눠가진다.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나중에는 서로 힘들 때 마다 의지한다. 사실 나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소민거리가 많은데 나도 더 이상 참지 말고 내 아픔을 공유해야겠다.

전반적으로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인공 유정이가 처해져 있는 삶과 내가 처해진 삶이 많이 비슷해서 무엇보다도 공감이 많이 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편견도 바뀌게 되었다. 유정아 정말로 깜언!!

2017년 청소년 인문학 감상문 쓰기대회 수상 작품

고등부

대 상

언덕을 오르는데 필요한 것

박영채
우석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 책의 배경은 아주 먼 미래로 날씨, 피부색, 감정, 성욕이 완전히 통제된 ‘늘 같음 상태’의 세상이며 어떠한 고통도 쾌락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을 내 원로위원회가 직위, 배우자, 심지어 자녀까지도 지정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선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험하지 못한다. 가족 또한 ‘양육’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일종의 ‘기한제 동거’의 형태로 전락했으며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유대감도 상실된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전쟁, 종교와 인종 문제같이 서로의 차이로 인한 고통,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 개인의 감정과 성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없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선택과 자유, 세대를 거듭하여 지속되는 가족 간의 사랑, 결속이 결여된 ‘디스토피아’로 비춰질 수 있다.

내가 바라본 책 속 세상은 ‘디스토피아’에 가까웠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책을 읽으며 확인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택’과 ‘가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선택과 그로인한 결과를 책임지며 살아간다. ‘기억전달자’ 속 조너스는 마을 사람들이 직위나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 선택을 불허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후에 조너스는 자신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안전한 마을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 그 선택으로 인해 조너스는 야생에서의 주위 배고픔 그리고 예측 불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열망해온 가치가 내재된 세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나도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 때문에 종종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선택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미래의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 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나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선택으로 인한 부담과 불확실성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미루거나 남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이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선택’이란 도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킨 조너스처럼 우리는 선택을 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마주하고 곰곰이 고민함으로써 나 자신이 책임지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

가족은 사랑하는 두 남녀의 선택으로 형성된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장하며 ‘유대감’이란 끈끈한 밧줄로 결속되어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책 속의 ‘기초가족’은 자녀가 생산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양육의 의무를 다하면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심화된 현대사회의 가족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평생토록 뒷바라지한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죽어가는 독거노인, 사랑보다 용돈을 요구하는 아이들, 자녀의 고민보다 성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을 통해 앞서 말한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었는지를 알 수 있

다. 조너스는 ‘가족의 사랑’이 따뜻한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우리의 가족이 이런 따뜻함을 공유하고 있는지, 사랑과 관심 없이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기초가족’은 아닌지 반성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함을 알려준다.

선택은 우리는 종종 가파른 언덕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그 언덕을 정복하는 여정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조력자는 바로 가족이다. 조너스가 가브리엘과 서로 의지하며 마침내 언덕 꼭대기의 이상속의 썰매를 찾은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통한 주체성과 가족의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삶’이란 가파른 언덕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 간절히 바라는 ‘썰매’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최우수상

『연을 쫓는 아이』로 바라본 삶의 진리

윤주영
우석여자고등학교 2학년

인간은 무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아미르이다. 아미르는 그의 하인이자 친구인 하산이 성폭행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자기합리화를 해서 위기에 직면한 하산을 배반한다. 그리고 하산에게 죄의식을 느껴 그를 피함으로써 죽마고우였던 두 사람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각자의 비밀을 가지게 된다. 자기합리화로 인한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미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거짓말은 다시 양심을 배반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이 부분에서 아미르가 양심, 거짓, 비밀, 배반에 대해 인간의 순환논리에 빠져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논리는 아버지인 바바가 알리의 아내 사나우바르와 동침을 하여 하산을 낳아 자신의 죽마고우이자 하인인 알리를 속이고 배반한 부도덕한 행위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비밀은 자신의 죄의식을 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나는 아미르가 하산과 알리를 내쫓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하산이 자신이 했다고 바바에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서 아미르가 자신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친구라는 하산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진실한 믿음이 지속된다면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 세계를 선하게 만들고, 결국 주인공인 아미르 역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진심으로 속죄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라힘 칸이 아미르에게 ‘다시 착해질 수 있다’는 말은 하산의 진실한 마음을 직시해서 그에게 속죄함으로써 다시 선해지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그 다음으로 아미르와 하산이 형제 관계였던 것을 숨긴 바바와 라힘 칸은 그 당시 큰 부를 축적하여 명예로웠고 하지라인과 파쉬툰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숨겼고 이로써 아미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식과 혼란을 주었다. 이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삶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거짓보다는 잠시 사실에 좌절을 느낄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해주는 진실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과 거짓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나는 유독 바바가 아미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내 생각에 그는 하산과 아미르 모두 자신의 두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산을 애써 부정하려는 거짓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용기는 자신이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과거 하산이 아미르를 구했다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있었던 것이고, 아미르가 아세프의 폭력이 두려워 하산을 외면했던 것은 진정한 용기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아미르는 하산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하는 반성적 성찰을 하면서 이를 극복하여 하산의 아들인 소랍을 탈레반으로부터 구출시켜 진정한 용기를 실현하게 된다. 이에 나는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며 살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황에 맞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 누군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큰 상처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 아미르처럼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멋지고 정의로운 삶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최우수상

아름다움과 무서움 사이에서

김나은
상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

언제부턴가 상대평가에 익숙해진 나에겐 이러한 구절을 보았을 때 지금의 경쟁사회만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다. 하늘 한 번 올려다 볼 수 있는 여유조차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감히 자연의 이야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나는 줄곧 자연의 이야기를 책으로 접해왔다. 지금도 그렇듯이 뉴스를 통해 기후변화로 많은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에서 그제 서야 미안함을 느끼거나 자연의 무서움을 느끼곤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도 앞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아름답고 보물 같은 자연만 생각해오다 자연의 이면을 충분히 느끼게 해준 책이었다.

먼저 무서움 속 에서도 강한 모성애에 마음이 아팠다. 인간은 엄마의 자궁 안에서 보호받으며 열 달을 기다리지만 새들의 경우 둥지를 지켜야한다. 쇠제비갈매기는 맨땅에서 아기새를 품고 기다리는데 그런 힘든 조건에서 인간의 개발이라는 큰 변화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지 자꾸만 생각이 들었다. 다큐를 찍는 분의 손길을 바랬는데 현실에선 새들을 도와줄 이가 없다. '내년엔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원망하지는 못했다. 무작정 자연을 보존해야한다기보다 개발과 보존이 다 필요해진 이 현실에서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것은 확실하다.

책을 읽으며 가장 많이 떠올랐고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것은 자연의 이면이다. 처음에 썼던 구절을 생각해본다면 무서운 자연을 접했을 때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식물과 생명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다면 기회를 얻는 자는 누구인가? 초기화 상태가 되기 위해 지구에게는 필요한 기회라고도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자연의 이면이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니 그 기회를 어느 정도 박탈해야 한다 해도 물리쳐줄 이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자연을 무서워해야하는 이유다. 비가 우리에겐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천재지변으로 감당할 수 없어진다면 우린 할 수 있는 것 없이 그대로 맞는 수밖에 없다. 며칠 전, 11월 15일 2018학년도 수능 하루 전날, 우리는 자연의 무서움을 함께 했다. 수능이 일주일이나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의 원인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자연의 힘 중 지진이었다.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모든 계획이 틀어져버렸다. 자연의 힘 앞에서 대적할 수 없기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제는 준비가 필요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최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연을 개발해야하나 보존해야 하나를 따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자연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전에는 내가 있는 상황에 대입했을 때 자연의 무서움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그 무서움보다 아마 더 클 것이다. 사람들은 알아야한다. 자연의 무서움 뒤엔 자연이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과 자연의 고고함 뒤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자연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

최우수상

『연을 쫓는 아이』를 읽고

김윤경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 책에는 아미르가 성장하면서 겪는 일들과 그 일이 가져다주는 죄책감, 깨달음, 반성, 그 일을 개선해가는 과정이 생생하고 흥미롭게 담겨있다. 책의 뒷 표지에는 "아미르의 배신은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문학리뷰'에서 적어 놓았다. 하지만 나는 겁이 많고, 나이가 어리다면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부터 다 자라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좋다고 본다. 나도 횟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곳들에서 실수를 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래서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자책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성장통일 뿐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나는 그 전보다 더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고. 실수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개선해가는 경험 뒤에는 깨달음과 성장·성숙해진 내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나의 실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어른들이 나의 실수를 넘어가주고 용서해줬듯이 나도 나의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훨씬 성장해있고, 성숙해져 있을 날에는 나도 남의 실수를 눈감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기를 기대해 볼 생각이다.

아미르가 진로를 선택·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시기가 짧게 있었다. 이건 우리집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 아빠는 항상 직업이 불안정해서 우리(오빠와 나)가 진로를 정할 때 걱정 한 가득, 현실적인 마인드를 한가득 안고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 투로 조언을 해주곤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르처럼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추진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아직 답을 모르겠지만 나를 믿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단' 하면 '될' 거라는 입장이다. 중요한 건 성공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우선이라는 것 일거다. 그렇게 나에게 맞고 내가 좋은 길로 가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도 만족하실 것이다.

이 소설은 초반부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 나라(아프가니스탄)의 역사적 현실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얽혀있다. 슬픈 현실이 느껴지고 굉장히 스케일이 장대해서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인종에 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많이 나타나있다. 그런 것들이 정말 가슴 아팠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다. 현재까지도 인종차별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은 시간은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깨닫게 된 점, 배운 점, 느낀 점들이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 읽게 된 계기는 솔직히 대회에 나오기 위함이었지만 이 책을 읽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책을 더 자주 읽게 될 것 같다.

최우수상

기억과 감정의 관계

김기찬
함창고등학교 2학년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정이라 함은 무엇을 일컫는 말이며 그것이 인간에게,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대부터 이어진 원초적인 질문에 추파를 던지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이 책 '기억 전달자' 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주인공인 조너스가 기억전달자로 하여금 감정을 되찾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평온을 유지하려는 고착화된 사회로부터 탈피하여 다른 사회로 나아간다는 내용으로 된 이 소설에서는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감정이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본 소설 속의 사람들(소설 내에서의 마을 사람들)은 평온함을 추구한 나머지 위험성을 배제한 평온한 상태인 '늘 같음 상태' 의 유지를 위하여 완벽한 통제에 이르게 된다. 50명으로 고정된 신생아의 수, 변하지 않는 날씨, 언어의 정확성을 위한 언어교정 등이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이 사회에서는 직업과 생애, 결혼마저도 정확성(실패하지 않음)을 위해 성격, 환경, 태도를 고찰한 뒤 원로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정해지게 되는데 이는 권력자들의 횡포처럼 보이기도 하나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그들의 인식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때문에 주인공 조너스도 12살에 직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남들과 다른 기억보유자라는 직업을 받게 된다. 이 사회에서는 유전자의 조작과 약물을 통해 기억과 감정도 통제하기 때문에 원로들도 우발적이고 급격한 상황에 대처가 불가능한 때가 있는데 이때에 기억보유자가 이들에게 조언을 주는 식의 구조였다. 그렇기에 기억보유자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고 조너스는 신기억보유자로써 임무를 수행하며 잊혀 진 감정들을 얻기 시작한다. 나는 이곳에서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작중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잊혀 진 감정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기초가정 내에서는 유대, 같은 그룹 내에서는 친애 등의 형태로 이미 사회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사랑이 보인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작가와의 생각 차이인지, 영어권의 Like와 Love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다. 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조너스가 전쟁의 기억을 통해 고통 받는 장면에서 기억을 통해 비롯된 감각에 의한 인식의 변화인지 아니면 해당 기억의 보유 그 자체만으로 가지는 의식의 변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의문이 들었던 점은 기억보유자라는 기억전달자(giver)가 되어 기억을 전달할 때만 기억이 흐려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작가에 의한 것인데 '늘 같음 상태' 를 위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한 것 일수도 있고 단순히 작가가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의혹을 가지고도 본 소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음은 아마 감정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감정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 감각을 통한 감정과 기억을 통한 감정으로 보인다. 물론 기억을 통한 감정은 기억에서의 감각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억(지식적인 의미로) 만을 가지는 것과 감각(물리적인 의미로)를 가지는 것은 의식의 변화에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작품에서 보이기로 주인공은 감각적인 의미로 감정에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소설 전반부에 걸친 위화감은 버려진 감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억적 감각들의 부재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감정이 기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생각하게 된다.

깊게 고찰할수록 즐겁다고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을 가질 시간을 준 이 책과 작가에게 감사한다.

우수상

조르바의 도끼처럼

김윤정
우석여자고등학교 2학년

“사람들은 대지와 삶이 무겁다고 말한다. 중력의 악령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히 빌헬름 니체의 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삶의 무게’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 말을 한 철학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애초에 ‘삶이 무겁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중력의 악령’이라는 말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다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과연 ‘무거운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매우 보편적인 경우에서, 우리는 조르바와 다소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 결혼. 이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정해진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어쩌면 이 정해진 틀이라는 것이 하나의 성취과제가 된 것은 아닐까 싶다. 단 하나의 과정이라도 완수하지 못하면 무섭도록 비판을 받는 사회에서, 그 틀에 발을 맞추기 위해 종종 걸음 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틀에 완벽하게 발을 맞추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에 오히려 더욱 깊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러한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

수학능력시험을 바로 코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갑자기 학교를 자퇴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우리는 그 학생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아마 그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대의 벽에 가로막힐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산다는 게 뭔지 알아? 허리띠를 풀고 말썽을 부리는 게 바로 삶이야. 산다는 게 곧 말썽이지.” 이렇게 모두가 “NO”를 외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YES”를 외친다. 그 사람이 바로 조르바이다.

‘나’와 조르바는 갈탄 광산 개발하기 위해 크레타로 떠난다. 사실 크레타로 떠나기 전이나, 크레타에 도착한 후나 소설은 조르바의 인생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젊은 시절 ‘산투르’라는 악기에 한 눈에 반해 결혼자금을 털어 터키인 선생에게 연주법을 배운 뒤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는 그의 무용담은 마를 줄을 모른다. 그 중에는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만한 행동이 존재하지만 나는 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그의 자유로운 인생에 더욱 집중하고 싶다. 그의 이야기에는 평생에 걸친 그의 자유에 대한 추구가 생생하게 우러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왜 검지손가락 하나가 없냐고 묻는 ‘나’에게 조르바는 이렇게 대답한다. “왜 검지손가락 하나가 없느냐고요? 질그릇을 만들자면 물레는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왼손 검지가 걸리적거리는 거 에요. 그래서 도끼로 잘라 내버렸죠.” 도자기를 빚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조르바의 행동은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행이지만, 조르바는 그토록 도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그만큼 조르바는 자유롭다.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를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 무엇이든, 조르바는 그 일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루하루를 즉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므로, 그는 인생이 즐겁다. 때문에 조르바에게는 세상의 틀이란 것이 없고, 인생의 쳇바퀴라는 것이 없으며, 삶이 무겁지 않은 것이다.

니체는 하루의 3분의 2를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분류했다. 하루에 그만큼의 시간도 자신에게 사용할 수 없는 자는 노예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만큼의 시간을 나에게 쓰기 위해서는 조르바가 그러했듯이, 도끼를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자기를 빚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조르바처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나 내가 사랑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마음속의 도끼로 잘라낼 줄 아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기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도 짊어지기 벅차다.

사람들은 대지와 삶이 무겁다고 말한다. 중력의 악령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 뒤에 니체는 다시 말한다. “그러나 가벼워지기를 원하고 새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사랑하고 내게 소중한 것 이외에는 모두 잘라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이다.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단호하게 도끼질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우수상

다른 길을 터준 그들에게

엄종현
상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누구든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을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자신을 그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풀어야 될 아주 큰 숙제이며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넘쳐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누가 이 문제를 살면서 명확히 풀 수 있을까 라는 게 내 생각이고 그저 우리는 이 문제를 차근차근 살면서 조금씩 풀어나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 나오는 쇠제비갈매기 또한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그들은 변화되는 환경에 자신들을 맞추어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전 자연환경 관련 도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 학교에 도서관 선생님께 했던 말이다. 난 한국소설이나 시집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쇠제비갈매기의 꿈」을 읽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책을 읽을 시간이 너무 촉박해져서 다른 책을 읽다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흥 없이 이 책을 폈었다. 자연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책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 그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맞았다. 책도 그랬다. 이 책은 내가 생각했던 진부하고 지루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더 말하면 내가 읽었던 웬만한 소설들 보다 더 흥미진진했고 재미있는 책이었다. 책의 중점이 되는 내용은 쇠제비갈매기의 산란기에 대한 것이 중점이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책은 마치 하나의 잡지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다. 보통 잡지를 보면 한권에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넣어 전부 소개하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보며 잡지라고 느낀 이규가 그 때문인 것 같다. 이 「쇠제비갈매기의 꿈」에서는 생태계 파괴라는 큰 주제가 있고 내가 처음에 말했던 환경에 맞춰가며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러 동물들에 대한 소개도 들어있어 한 4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여러 주제를 보니 내용이 풍부해서 읽을거리가 많았던 것 같다.

또 이 책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건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이었다. 이 책에 나오는 '나'는 작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의 '나'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더욱 재미있었다. 또한 중간 중간에 쇠제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특색 있고 재미있었다. 자신만의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른 입장에서 표현을 해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다.

이 책을 읽어보며 했던 생각은 쇠제비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했던 이 생각은 사실 이제는 좀 힘든 생각인 것 같다. 결국 뒤에 나오는 작가의 말에서 시화호에서는 이제 쇠제비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고 쓰여 져 있었다. 공사가 진행이 되어 둥지를 만들 곳이 없기 때문이었고 난 목에 무엇인가 걸린 마냥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왜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쇠제비를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 쇠제비갈매기들이 살 공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평소 무심코 하는 일도 지금 생태계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그 큰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나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 작은 일이지만 주변에 이 책을 권유해서 작은 힘을 써보려고 한다. 나에게 또 다른 생각의 길을 터준 이 책의 저자와 쇠제비갈매기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마지막 작가의 말이 참 마음 한편에 웅크려 아직도 나를 슬프게 한다.

'시화호의 긴 침묵은 봄날이 다가도록 이어졌다.'

장려상

쇠제비갈매기의 꿈

차규현
중모고등학교 1학년

항상 있는 일이다. 무슨 책을 고를지 선생님한테 받은 네 개의 책들 역시 난 고민하였다. 근데 그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 책 한권이 있었다. 바로 「쇠제비갈매기의 꿈」이라는 다큐를 찍으며 만들어낸 책이다. 난 표지를 보고 웬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왜 슬퍼 보이는 거지? 하면서 이 책을 골랐다. 이 책은 무엇인가 짧아 보이기도 하고 그림도 많아 내가 읽기에는 딱 좋은 책일 것 같기도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열어보았다. 이 책에 내용은 이러하다. 주인공은 항상 인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한다. 그러다 주변에 보이는 동물들을 관찰한다. 그리고 다큐를 찍으시기도 한다. 그 중 오늘은 쇠제비갈매기라는 새에 대해 소개하신다. 쇠제비갈매기의 삶, 탄생 등등 쇠제비갈매기에 대해 나온다. 물론 쇠제비갈매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개구리 친구, 맹꽁이, 부엉이, 수달 등등 다른 보호되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나오고 있다. 쇠제비갈매기는 거친 폭우 속에서도 알을 낳기도 한다. 나는 그런 쇠제비갈매기를 보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기도 한다.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막 개발하니 날씨가 마음대로 변하고 그 변할 날씨들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동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니 왠지 저런 동물들에게 미안해진다. 항상 우리들만 생각하니 더 미안하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보면 작가님이 사진에 맞게 쇠제비갈매기들의 대화 내용을 넣기도 하신다. 나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동물들이 인간의 말을 한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정말 인간 때문에 생존이 힘들다고 얘기할까? 우리에게 화를 표출할까? “너희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어.” 하고 정말 말할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자주 동물원에 갔었다. 어릴 때 동물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런데 새끼를 낳고 있는 기린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기린이 새끼 기린을 낳고 쓰러졌다. 그때 나는 어린 마음에 쓰러진 기린을 보고 울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주셨다. “엄마가 널 낳아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저 엄마 기린도 애기 낳는다고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엄마도 너보고 건강하게 기운 차렸잖아. 그러니 저 엄마 기린도 기운 차릴 테니 너무 걱정 하지 마.” 라는 말에 나는 눈물을 멈췄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렇게 힘들게 동물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더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여기에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쇠제비갈매기들의 대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긍정적으로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 공사장을 둥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물총새의 부부가 폭우 속에서 부부의 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다가 싸늘한 시체만 남기도 한다. 또한 쇠제비갈매기들도 폭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이 책을 보며 정말 인간들만 생존하려고 필사적으로 돈 벌고 먹고 입고 잠을 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동물들도 먹기 위해 먹이를 구하고 둥지를 짓기 위해 터를 구하고 알을 낳기 위해 좋은 곳을 고르는 게 인간의 생존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동물

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다. 그 동안 동물들에게 미안하다 멸종위기보호동물들에게는 더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동물들이 뭐하는 동물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하, 이런 동물들이 우리 눈에 안보이게 생존에 힘을 써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인간 뿐 아니라 다른 생명도 지키는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가져줬으면 한다. 다음에 또 읽어볼만한 재미있고 유익한 다큐 책 인 것 같다.

장려상

나무보다 풀이 낫다

강혜나
상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는 바바를 좋아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책들은 주인공의 시점에서만 말한다. 연을 쫓는 아이는 모든 사건을 아미르의 시선을 따라 서술했다. 다행인 점은 이 책에는 아미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다가본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중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인물은 바바다. 보통 주인공의 아버지 역할은 아버지로써의 모습만 부각되는데, 나는 바바에게 그런 모습 이외에 살아가면서 닮고 싶은 점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완벽한 인간이라면 오히려 바바에게 거부감이 들었을 지도 모른다. 나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바를 좋아한 이유는 바바가 불완전한 인간이라서다. 바바는 알리에게 아미르가 태어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자신의 아들인 것을 의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바와 아미르는 분명히 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바는 아미르에게 자신의 모습인 남성적인 면을 주입시키려고 애쓴다. 이 때문에 아미르는 주눅 들어 있다. 바바가 아미르에게 저지른 행동은 시대적 상황탓도 크지만 나는 애써 이것을 변명해 주고 싶지는 않다. 자신의 재능이 거부당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미르가 자신의 재능을 단련시키고 마침내 작가가 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나는 이것이 바바가 아미르에게 한 일 중 가장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용서받지 못 할 일을 저질렀음에도 내가 바바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바가 가지는 곧은 신념 때문이다. 러시아 군인이 바바의 앞에 총을 들이밀었을 때도 낯선 땅 미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을 때도 바바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나라면 이미 절망했을 순간 속에서도 바바는 몇 번이고 진흙탕을 빠져나왔다. 아미르는 바바가 늘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고 회상한다. 이길 수 없는 병마 앞에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졌다. 시한부 환자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몇 번 본 적 있다. 각자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달랐다. 나는 바바가 죽음을 맞이했다 말하기보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이 눈 앞에 닥친 것을 알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다.

바바의 또 다른 장점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바바가 아내를 잃고 알리의 아내에게 저지른 일과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옹호해주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그저 그 후의 일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 바바는 늘 도둑질이 가장 큰 죄라고 말했다. 이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미르는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바바에게 실망한다. 아미르는 그 행동이 바바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바바가 도둑질을 혐오한 것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이라 느낀다. 바바도 알 것이다. 자신이 알리에게, 아미르에게, 하산에게 무엇을 빼앗았는지. 바바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속죄하는 것이다. 큰 돈을 들여 고아원을 짓고 많은 선행을 한 것 또한 속죄의 과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라면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내 자신을 옹호하고, 그 일을 영영 덮어버렸을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를 명확히 인식하고 속죄하는 바바의 모습은 내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바바는 내가 닮고 싶어 하던 인물 상 중 하나였다. 나는 산들바람에도 흔들리는 풀처럼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위기를 맞는다. 다행인 것은 바바와 내가 유일하게 닮은 점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바바가 나무 같다고 생각했다. 두세 명은 있어야 두 팔로 겨우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나무.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않는 그런 나무 말이다. 책을 다 읽은 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바바는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을 때, 바바는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바바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꺾이지 않은 것이다. 바바는 깊은 뿌리는 가진 풀이다.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땅 속의 뿌리만 튼튼하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후 바바가 많은 시련을 겪어도 꺾이지 않은 것은 신념이라는 깊은 뿌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작지만 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그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꺾이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 아직은 비록 얕은 뿌리지만 점차 자라난다면 나도 바바처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래본다.

장려상

기억전달자

김광수
상산전자고등학교 3학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지구에 전쟁, 가난, 배고픔, 인종차별, 더위와 추위,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라고 말이다. 놀랍게도 조너스가 사는 마을은 위에서 예로든 모든 것이 없는 이른바 유토피아 같은 곳이다. 하지만 이런 마을에 사는 조너스에게도 얼마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 바로 12월 기념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12월 기념식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주는데 12살이 되면 마을의 원로들이 회의를 하여 그 아이의 직업을 결정해준다. 조너스는 이번 12월 기념식에서 12살이 된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직업을 받게 될지 몰라 12월 기념식이 다가올수록 점점 겁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조너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흘러 12월 기념식 당일이 되었다. 조너스는 부모님과 여동생 릴리와 함께 마을회관에 모였다. 12월 기념식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12살 아이들의 직업이 결정되는 시간이 왔다. 친구인 피오나는 복지사를 받았고 조너스는 기억보유자로 선출이 되었다. 기억보유자는 과거에 있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음 날 조너스는 전대 기억보유자를 만나 과거에 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전달받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받은 기억은 눈에 관한 기억이었다. 그리고 조너스는 행복, 사랑, 자연, 동물 등 좋은 기억을 많이 받지만 전쟁, 고통, 고독, 배고픔 등 수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전달 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조너스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 바로 쌍둥이의 임무해제를 본 것이다. 임무해제는 3번 이상 죄를 저지른 자, 노인, 장애인,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행한다. 조너스가 생각했던 임무해제는 노인들은 축하를 받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쌍둥이는 무게가 적게 나가는 아이를 다른 마을에 보내는 것이라고 보육자인 아버지에게 들어왔다. 하지만 실제로 본 임무해제는 다름 아닌 안락사였던 것이다. 조너스는 이 일로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받아 마을을 벗어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조너스는 계획 날이 아닌 날 밤에 마을을 벗어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데려온 동생처럼 아끼던 가브리엘이 다음 날 임무해제를 당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임무 해제의 진실이 안락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조너스는 그날 밤에 가브리엘을 데리고 마을을 벗어난다. 결국 조너스와 가브리엘이 마을을 벗어나 다른 마을을 찾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된다.

조너스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마을일 것이다. 전쟁, 가난, 인종차별, 추위와 더위, 배고픔, 실업자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일자리 걱정도 없이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보고 조너스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갈 수 있다면 갈 거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너스의 마을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유다. 조너스의 마을은 자유가 없다.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해야하며 집집마다 모두 CCTV와 스피커가 붙어 있으며 자신의 직업, 배우자, 가구위치, 아기까지 모두 나라에서 정해주는 대로 살아가야 하며 자신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조너스의 마을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없애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노인과 쌍둥이, 장애인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너스의 마을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이 읽기에도 좋지만 난 이 책을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자신이 조너스의 마을의 원로들처럼 자식의 앞길을 선택하지 않는지, 자식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자식을 키우지는 않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추천한다.